

방금 페포니스와 스카이프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안기현 선생님 프로젝트의 다이어그램이 용적률 게임을 가장 쉽고 명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가에게 안기현선생님의 것을 템플레이트로 보여주면서 악소노 다이어그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제작?). 그리고 모형은 2개 (안기현 선생님의 다이어그램 기준 2번, 4번)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 4번에 숨어있는 Extra volume, space, element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다이어그램에 색깔로 표현하는 것을 제언하네요. 노동력, 작업공정을 줄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2개의 단순한 매스모형, 악소노 다이어그램 1장 (4단계 정도로 간략화)으로 통일. 두 분 함 생각해보시죠.